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부활 후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2시에 자연예배당에서 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정관 개정)
- 다음 주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창립주일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 : 정태일 목사 (사랑방공동체 설립자)  
주제 : 사랑방공동체 40년,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 멧쟁이학교 도보여행이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4일간 화천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 꾸러기학교 '베개의 날'이 23일(화)부터 2일간 학교와 외부에서 있습니다.
- 창립기념 주일을 준비하며 화단 울타리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 감사 )  
이예은 청년 ( 생일 감사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16 호

2024년 4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교회 생일을 떠올리고 감사하며

약 10여년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땅을 떠나서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이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였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떠났기에, 루터보다 100년 앞서 종교개혁 활동을 하다 순교했던 안 후스의 지역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도 훌륭한 곳이었지요. 그때 당시 체코에서 거주하고 계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숙소로 자기 집을 쓰도록 해주시고 시간을 내어 여기저기를 가이드 해주셨습니다. 천문 시계탑, 안 후스의 동상이 있는 광장, 밤에 바라보는 프라하성, 대성당,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후스 전쟁의 흔적 등등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지역이 된 것은 그 분의 덕이 컸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던 중, 선교사님이 저녁이 다 되어 어느 한 교회를 가보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얼추 공부하고 목표했던 곳들은 둘러보았고, 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부탁하신 것이기에 흔쾌히 승낙하고 따라갔습니다. 20여분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주변에는 그저 공원 하나가 곁에 붙어있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익숙하다는 듯이 걸으론 음침해보이는 여느 집의 철문을 열면서 들어가셨고, 그곳은 바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예배가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엉거주춤하면서 빈 자리에 앉았고, 어딜 부르는데도 모를 찬양을 따라하고, 이해 못할 외국어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예배가 끝나자,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책상들을 펴서 음식을 가져다놓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가득 담은 그릇을 천보따리로 싸온 분이나, 다양한 반찬 요리를 예쁘게 담아온 분도, 과일류를 먹기 좋게 썰어서 갖고 온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음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밤을 잊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들에 둘러싸였던 당황스러움 때문도 아니고, 이름도 모를 다양한 음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던 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자만의 이유로 프라하에 살던 외국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 목사님을 모시고 외국

인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창립예배에 함께 참석한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날 저희가 보았던 것은 인종도, 언어도, 음식이나 문화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로 뜻을 모았던 풍경이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다른 현지교회 건물을 빌리고, 사람도 스물 남짓에, 타지 생활 중이라 풍요롭지도 않고 결속의 끈도 느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이 싸들고 와서 즐겁게 나누는 모습은, 어떤 면에선 우리 교회를 떠올리게 했고, 어떤 면에선 생일잔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척박하고 싸늘한 세상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는 장이었고, 잘 몰랐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선 흔히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론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이나 단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한 존재가 가진 생명력이, 시간을 거처가면서 세상에 남기는 흔적에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볼 때에-탄생을 축하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아름다움과 의미있음을 노래할수록, 그 생애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높여드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이 교회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 말입니다.

교회의 생일을 앞두고서, 다시 한 번 그날밤의 풍경을 떠올려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는 노력들이 아름답게 빛났던 광경을.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전 그 모습을 처음 봐서 감명이 깊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방공동체에서 보았던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낯선 곳에서 다시 목격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어 40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또 지체되신 분들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지탱해오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간 이르지만, 생일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맛보게 해주신 분들께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 한주간 말씀

“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

< 시 편 23편 6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40 406 442

기도 :

성경 : 이사야 18장

제목 : 하나님 역사의 목격자 에티오피아

1. 내용: 하나님의 때에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실 것이다. (What)

<문단구분>

1~2절 사절단아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여라

3~7절 그 때에 만군의 주님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2. 의미: 만군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Why)

1) 하나님께서 앗시리아를 벌하실 것이다.

2) 구원이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3. 적용: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How)

1)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 나의 일상

아침 기상 알람이 울립니다. 어렵게 일어나 알람을 끄고 일어나니, 집사람은 새벽 타임 근무로 출근하고 자리에 없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온수 1컵과 계란 프라이와 샐러드, 비타민제 알약이 한 접시씩 식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하고 아내가 정성껏 마련해준 조식을 지정해준 순서대로 후딱 해치웁니다. 그리고 바로 출근 기상 시간부터 30분 내에 모든 것을 마치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아들내미가 귀가하는 것을 못 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방에 있는 것을 보니 어제 새벽까지 야근하고 귀가한 모양입니다. 오늘 나가면 내일 새벽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딸내미는 취업합격은 했으나, 외부요인으로 출근 시기가 자꾸 연기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통상 오후에 나가 저녁 11시쯤 귀가합니다. 이러한 스케줄은 주말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요사이 정시에 출퇴근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안타깝고 어렵지만, 부모 된 입장에서 ‘주일성수’, ‘예배 참석’, ‘성경 읽기’ 하라는 이야기는 바쁨과 피곤함에 묻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이에 말문을 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씨앗’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미력하나마 ‘그루터기’ 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비움사랑방 최창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이사야서 40 : 10-11 인도자  
1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5 : 20 인도자

39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시 편 23 : 1-6 설교자

성가대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비움사랑방 설 교"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69 설교자

438(1) 다함께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진정행 / 꽃꽂이 : 김영화  
듣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시편의 절반을 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이미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이 충분히 안정을 누릴 때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에 개입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목동 출신이었던 자기 경험을 잘 녹여낸, 다윗 자신의 진솔한 신앙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시고, 양떼를 보호 하시며, 원수들 앞에서 잔치 상을 베풀어주십니다. 목자는 양떼와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돌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목자는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보입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다윗은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소망을 뜻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는 가장이 책임을 지고서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전선희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와~ 너무 예뻐요!”

“작은 꽃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엄청 맛있어요!”

꾸러기들이 ‘제이드가든’에서 한 말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세 시간 남짓 산책을 하는 동안 감격하며 꽃과 나무를 바라보고 향기를 맡고 새소리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꾸러기들이 표현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사한 나들이였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광릉수목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견하며, 걷고 뛰고 장난치며 산책을 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올챙이도 많이 보았습니다. 할미꽃 군락지에서는 부드러운 할미꽃을 살며시 만져보았는데 (할미꽃은 정~말 부드러워요) 지음이가 “선생님! 할미꽃으로 이불 만들어 덮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할미꽃 이불이라니! 정말 부드럽고 포근하겠다.’ 생각하며 함께 반달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한 나들이였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해마다 봄이 지나가기 전에 건강과 안전부터 돌아보는 의미로 각종 교육과 검사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구충제 복용이 있었고, 4월 30일에는 내과, 안과, 치과에서 병원 검진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에는 성교육과 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올해 성교육은 월요일 3교시에 5, 6학년 대상으로 창동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강사 선생님이 학교로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성 평등’과 ‘성 폭력’에 대한 것이었는데 친구들이 일기장에 쓴 성 교육 후기를 보면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

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점심 식사 후에는 전체 학년이 다함께 경기도 교육청 안전교육관으로 가서 ‘일상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전교육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들은 일상안전 부분을 교육 받아서 화재 안전, 소화기체험, 야외(캠핑장) 생활안전, 승강기안전, 화재 대피, 피난기구 안전교육(완강기 체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학교에서 성교육은 해마다, 안전교육은 격년으로 받을 계획이고, 나와 이웃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벚꽃잎은 졌지만, 푸른 이파리가 산속의 공백을 대신하듯 뽀뽀 채워갑니다. 그에 반해 지난 주까지 축구로 꽉 채워져있던 멋쟁이들은 도보여행을 대비해서, 몸을 아끼는 절제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운동의 바퀴수는 늘긴 했지만요. 대신 수요일에는 체육 대신 멋쟁이 전체가 함께 노작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동체 화단의 울타리를 짝 교체하는 작업이었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니 놀라운 속도로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의 마지막 대단원으로, 실제 탈북민과 임용석 목사님을 모셔서 대화를 하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멋쟁이들의 씩씩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며, 북한과 탈북민의 현실이 피부로 와닿는 귀한 장으로 배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두 다함께 광릉수목원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도보여행 식사모듬별로 대화하면서 피톤치드를 양껏 들이키고, 그 안에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나는 보물찾기와 숫자 짜맞추기 등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즐기고 돌아왔는데요. 그 와중에 한 멋쟁이가 했던 말이 기억 납니다. "배고파요." 역시 멋쟁이 생활은 밥심인가 봅니다.

이제 다음주는 정말로 도보여행을 떠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얼마 전 '부활절찬양잔치'를 앞두고 기독교저작권협회(CCLI)에 가입했다는 광고를 드렸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매년 성가대 찬양을 복음성가로 부르시는 것을 보면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CCLI에 가입한 것은 많은 교회에서 저작권과 온라인 생방송이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복음성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곳에서 소송을 하게 되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껏 찬양곡을 교회에서 많이 불렀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예배의 면제'라는 미국의 저작권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저작권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녹화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생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찬양곡을 사용하고 싶어졌고, 또 찬양곡의 작곡 작사가들도 저작물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것을 도와주는 협회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협회에 가입한 것이고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복음성가 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협회에서 관리하는 곡에 포함된 곡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곡이 들어있고 어떤 곡이 없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저나 반주자, 교역자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무실에 '찬양곡 목록'을 만들어서 비치해 두었으니 거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동안 온라인 방송을 위해 성가대 찬양할 때 찬송가만 사용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찬양곡을 고르실 때 설명 드린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길 소망합니다. [이 글에서 사용된 저작권 관련 설명은 연합감리교회 자료 중 '온라인 예배에서 범하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벌금-오천의 목사'를 참고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210장 524장 288장

성경 : 베드로전서 3장 8-16절

말씀 :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의 장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자지구의 기독교 공동체의 존재도 위협에 처했다. 가자지구 인구 약 200만명 중 기독교인은 천명가량이다. 대피령에도 이들은 "교회는 우리 가자지구 기독교인 존재의 초석"이라며 가자시티에 있는 교회 2곳으로 몰려왔다. 10월 19일 공습으로 아기들을 포함해 17명이 숨졌다. 그 땅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북한의 주민 및 탈북민을 위해>
  - 1) 위협과 박해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 2) 탈북민 선교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멧쟁이학교 도보여행을 위해
  - 2) 환절기 건강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 마당 화단 울타리가 되어줄 튼실한 나무가 주차장에 쌓이고 하루 종일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적당한 크기로 잘려진 나무들을 나집사님께서 화단 곳곳에 가져다 놓으셨고 멧쟁이들과 생활공동체 식구들 모두의 손이 합쳐져 검게 썩은 울타리가 뽀얀 새 나무로 모두 교체 되었습니다.

썩은 나무들을 나르고 땅을 파고 무거운 나무를 적당한 자리에 모양 잡아가며 놓고 흙으로 다시 덮는 고된 작업을 다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사랑방을 새롭게 단장하는데 모두의 마음이 모여지니 감사할 뿐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